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75)(10/16/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10 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4-절

눅 14:10-11 - 10.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4. 언제나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십시오.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눅 14:10).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이 없이는, 가장 높은 곳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성도들은 그들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큰 영광 가운데 있게 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진리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사람들은 서로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자기들까지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고, 그들 자신과 모든 성도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찬송을 받게 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늘 애쓰고 힘씁니다.

5. 지극히 작은 선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큰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선물을 가장 큰 선물로 여기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선물을 가장 특별한 선물로 여기십시오. 단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잠깐 생각해 보기만 해도, 그 어떤 선물도 결코 보잘것없거나 작은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형벌과 채찍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때에는 감사하고,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감사하여야 하고, 은혜를 거둬 가신 때에는 참고 인내하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해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사고방식과 반대되거나 뛰어넘는 것들이 많다. 특히 역설적인 것이 많다. ‘역설(Paradox)’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 주장, 이론을 의미하는데, 역설적 진술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과 주장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는 진술방법이다. 성경의 가르침 속에는 역설적 진리들이 많이 들어 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진리, 죽으면 산다고 하시는 말씀(마 16:25 -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죽음과 생명은 반대되는 것인데도, 죽으면 산다고 말씀함), 그리고 고난 받는 것도 유익이라는 말씀(시 119:71 -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이다.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의 역설적 진리는 낮아지면 높아진다면 것이다. 눅 14:10-11 - 10.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 막 10:45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에 담겨 두신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었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진리대로 살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그러한 성경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역설적 진리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다. 마 5:39-42 - 39...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 39-42).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속에 담긴 역설적 진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고 하신 것이다.

승리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대로 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 세속적 성공, 물질적 풍요, 그리고 인간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 주어진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곧 승리한 것이다. 롬 12:1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의 모범 가운데 대표적인 덕목은 바로 겸손과 낮아짐이다. 겸손과 낮아짐이 특징 중의 하나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귀히 여기고 대접하라고 하셨다. 마 25:40 -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윤을 남겼을 때 주인은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고 말씀하셨다. 마 25:21 -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제자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며, 큰 것만을 중히 여기며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스스로 낮아지면서 동시에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히 보상해 주신다. 마 10:42 -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역설적 진리 속에는 승리의 비결이 들어 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설적 진리를 실천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가, 아니면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주님의 길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오늘도 본받아 진정한 영적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기독교 탄압이 계속되는 중국을 비롯한 이슬람 지역들, 그리고 독재정권과 군사 쿠데타 세력이 장악하여 고통이 계속되는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미국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며, 총기, 마약, 인종차별, 성적타락, 도덕적 부패 등 이 땅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